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께 진실로 감사하라!

다음 주일(7월 2일), 맥추 감사주일 및 제5차 성찬식(1부-5부 예배)

2006년! 우리는 '내가 범죄하였사오니'(눅 15:18)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1차 청지기 훈련 말씀인 그리스도인의 바깥어진 삶(갈 2:20)에 이어서 지난 제2차 청지기 훈련 말씀인 베드로의 회개(눅 22:61,62)를 통해서, 나태해진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경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대담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진실한 감사의 날! 맥추 감사주일

우리의 사신이 십자가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린신 그리스도를 향한 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반 년 동안 나의 가정, 사업,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참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날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출 23:16)은 일반적으로 칠칠절, 오순절 등으로 불립니다. 칠칠절은 이매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7주간의 곡물 추수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순절 또한 추수와 관계된 말로 이 날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맥추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로 1:8). 단순히 현금 준비로 맥추절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로 회개하였는가?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라! 제5차 성찬식

맥추 감사주일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할 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삶과 피만이 우리에게 창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요 6:53).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 유일한 감사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요 6:56).

금요집회를 통해 누리는 성탄의 기쁨과 찬송

우리는 금요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달간 배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깊이 새겨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때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했던 '거룩한 성'은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격적인 은혜를 주었습니다(벧후 1:3).

이제 '거룩한 성'에 이어서 우리는 '거룩한 밤'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밤입니다(눅 2:14). 이 찬양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집회에는 성탄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탄절에는 모든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서 '할렐루야(헨델의 메시아 중 42번곡)'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우선 매주 금요집회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또한 오실 때에는 금요집회 시 나누어 드린 피스(pieces)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집회 시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리고 준비할 성탄의 찬송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고후 1:3).

7월 교회 일정

- 2일(주) 맥추 감사주일, 제5차 성찬식
- 4일(화) 장년 2부 · 소망부 수련회
- 5일(수) 권사회 헌신 예배(수요 2부 예배), 정기당회
- 12일(수) 교회주변 전도(수요 1부 예배 후)
- 16일(주) 청년1부 · 장년1부 · 예배다부 수련회(17일까지)
- 17일(월) 영아 · 유아 · 유치부 성경학교(18일까지)
- 청년2부 수련회
- 24일(월) 유년 · 초등 · 소년부 성경학교(25일까지)
- 고등부 수련회(26일까지)
- 26일(수) 대학부 수련회(28일까지)

*오늘(25일), 제3차 학습 및 세례식이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은 갈릴리을 오후 3시)

COMMUN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3~26)

Jesus Christ died on a cross for us. He resurrected, ascended into heaven, and promised to come back. He said,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1-3). God's angels also promised the disciples,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Acts 1:11). Even the apostle Paul assured us,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1 Thes. 4:16&17). Jesus is coming back!

In today's Bible verses, Jesus say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v. 26). Until His return, Jesus asks us to perform Communion. This means that the Communion Service is a very important and very serious occasion. It is not a practice that can be performed half-heartedly or carelessly,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 (1 Cor. 11:28-30).

Christians are to partake in communion until Jesus comes back. He instituted this special meeting to commemorate His death. Through the centuries, the church has faithfully kept this appointment. We reserve this time to remember the significance of Christ's death, rededicate our life to Him, and forgive one another. We strive to obey Christ's commands regardless of conditions. What does communion mean to you? Has it become a faithless form of tradition? Do you really expect Jesus to return? I hope you come to Communion with a pure heart that believes and appreciates the work of God for your salvation.

The message of the cross will endure until Jesus comes. Until that time, we must take our cross and persevere. Times and

conditions change, but the message of the gospel will never change. All sinners need salvation. Jesus Christ purchased your salvation on the cross, through His blood. He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Like the Old Testament blood sacrifices that were continually needed to cleanse sin, so Christ's blood, once and for all, cleanses our sin, "And according to the Law, one may almost say, all things ar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Heb. 9:22). Christ's blood cleanses all sin! There is no other way to heaven but through Jesus Christ. No amount of money, political power, or good deeds can buy salvation. 1 Peter 1:18-19 says, "knowing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like silver or gold from your futile way of life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Revelation 1:5-7 tells us that Jesus Christ "releas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and He has made us to be a kingdom,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to Him be the glory and the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Behold,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ose who pierced Him; and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over Him. So it is to be. Amen."

The power of the cross will change all the lives of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until He comes. Romans 1:16 says,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1 John 1:7 also tells us,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To walk in the light is to live in obedience to God's commandments.

My dear friend, Communion will always be relevant. We need to remember Christ's death. We need to keep the cross and His coming in mind, remembering that His death is more than taking the elements. It is celebrating His love, giving thanks for His grace, praising God for His sacrifice, and rejoicing in salvation. Communion is for those who have been born again. It is a time for making things right with God and others. Are you ready for communion? 

다음 주일 설교

성찬식

⁽²³⁾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3~26)



김성관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하나님의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느님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느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행 1:11).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느님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7).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성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성찬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행할 의식임을 말해 줍니다. 성찬식은 아무런 열성도 없이 대중대중 행해도 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주의 몸을 분변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28-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전 11:28-30).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특별한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도 없이 드러지는 전통적인 의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때까

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 1:29). 구약 시대 때 죄를 씻기 위해서 계속적인 피의 희생을 필요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울분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 9:22).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지녔거나 선행을 수없이 쌓았더라도 이것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18,19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5-7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증거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불찌에 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하는 십자가의 능력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로마서 1:16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요한 일서 1:7 또한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 그 이상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와 주님의 제물을 마음 속에 새겨야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회생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아이들, 초등부



서영식(장로, 초등부장)

초등부는 초등학교 3,4학년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작게나마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초등학교 3,4학년 때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채워질 수 있도록 배우는 곳이 바로 초등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초등부에서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교육관 407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 반별로 신실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분반 공부를 하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시작 전과 모든 분반 공부를 마친 후, 어린 양을 위해 다시 교사 기도회로 모여 교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며, 매달 한 번씩 심방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앞으로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이 자리 잡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아이들이 배우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을 주위의 친구들과 나누는 어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린 주님의 제자로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친구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혹을 견뎌 내며 초등부 아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또한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평안을 얻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을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골 1:23).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대학부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어 간다. 대학부에서 보낸 6년은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분을 눈을 감은 채 손으로 더듬어 가며 알아 가는 시기였다.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그분은 오래 전부터 나를 잘 아셨던 분 같았다.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셨고, 내게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 의지마저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나를 만지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분을 위해 포기할 수도 있었다. 나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그분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그분이 찾았음을 알게 해주었다.

청년부에 올라온 후에도 그분의 가르침은 계속되었다. 여전히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셨고, 그분만의 방법과 계획으로 나를 가르치셨다. 그분은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분의 말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때에도 오래 기다리시며 내가 그분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강제적이지 않았고, 억지로 습득하도록 하지도 않으셨으며 나의 의지를 존중해 주셨다. 하지만 그분의 의지는 항상 나의 의지를 운운하게 겪을 수 있었고 나는 나의 의지를 버리고 그분의 의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몇 주 전 청년부 집회를 통해, 어떤 버린 것이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삶이 있는 말씀이었다. 내게 말기신 조원들을 생각나게 하였고 조장으로서 있는 나의 상태도 깨닫게 하셨다. 청년부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나오지 않는 조원들을 돌아보게 해 주셨고 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그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기억나게 하였고 피곤 후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셨다. 그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찬양을 드릴지 알게 해 주셨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시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갈 길 모르는 죄인이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진리이다.

김정배(청년 1부)



지친 저에게 예수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 대학부에 참석한 날 새가복부 모임에서 주눅이 있어 있던 제게 조장 언니가 다가와 주었고, 처음으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온전히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귀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물에서 벗어나 좀더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대학부 모임을 멀리 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만나는 대학부 자체들, 또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는 자체들, 아니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대학부 집회를 갖던 날, 인간적인 민망함과 죄송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조용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 분주하게, 열심히! 학점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서둘러 또 힘들게 뛰어다니다가 지쳐 버린 제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나? 그럼 나의 품에 안겨라!" 예수님은 그 동안 저의 잘못을 묻지 않으셨고 그저 저를 따뜻하게 품어 주셨습니다. 저는 진실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를 품어 주신 예수님은 정말로 제가 힘들게 쫓아다니고 계획하고 불안해 하던 것들이 아닌, 당신만의 방법과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셨고, 대학부 내 '봉공방'이라는 공부방 사역을 통해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매우 이기적이고 제 생각만 하던 저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값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부와 함께 지난 대학 생활을 해왔고 이제 벌써 4학년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에 한참 취업과 진로로 기도와 말씀보단 고민과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아버지께는 '조장'이라는 자리에서 오히려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더 섬기게 하시고 또 이번 여름 방학 선교에 대한 믿음도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 믿음뿐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제 안에 있기에 오늘도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김수연(대학부)



성령님의 강력하신 능력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척이나 험했습니다. 아침에 출발했지만 고지의 산악길을 달리고 달려서 오후 6시가 다 되어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속소를 정하려 하였으나 밤이 없어 어느 모퉁이의 거실을 빌려 하루 밤을 지낸 우리 일행은 다음 날 속소를 예약하고 정탐을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을 벗어나자 가도 가도 풀이 없는 절라나무 숲길에 나왔습니다.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현지인들이 길과 다리 공사를 하다가 한낮의 땀약볕을 피해 목재 건물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쉼 공간에 시원한 바람을 주셨고 우리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성령님의 강력하신 능력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고 울음까지 따라하였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이 복음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셋째 날 주님께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토요일이었고 수심 킬로미터 떨어진 인근 지역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 가족을 동반하고 이 곳 장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집마다 자동차가 있었기에 이들의 거주 환경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팀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팀을 짜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운전 기사도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비협조적이었으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도 함께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나아갔던 작은 한 걸음까지도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최형자 (집사, 3교구)

늦게 왔지만!

"주님은 조종사, 우리는 부조종사!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팀장님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성령의 도구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에 임하였다. 일 대 일 전도를 하기 위해 한가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던 중 텃밭에서 벌레를 잡고 있는 한 아주머니께 다가갔다. 인사를 하며 한국에서 왔으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주머니는 무어라 말하며 주머니에서 조그만 책자를 꺼내 보여 주었다. 이단이 전해 준 한국어로 된 전도지였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의 전도지가 진짜라며 주었지만 받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역자에서도 같은 이단의 전도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곳에 늦게 온 것이다. 이미 악한 사탄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 진리로 미혹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았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힘이 다하도록 십자가를 전하였다.

박경숙(집사, 18교구)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님

매달랐고 황량했던 땅에 비가 온 후
풀들이 눈에 띄게 자라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막의 황량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듯이
그 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 년 전 누군가가 전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시대의 그 꾀박 속에서 물고기를 그리며
그리스도임을 나타냈던 그 손길과 눈길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를 그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들관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무리지어
여린 영혼들에게 떡을 떤었습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보내 주신 주님께서
그 곳에도 영광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열 명에게 주신 은혜대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복희(집사, 14교구)

주님의 방법으로 !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들었기에 많은 기도로 준비하였지만 무척이나 긴장되었다. 도착하여 사람들을 만나니 외국인에 대하여 관심도 표정도 행동도 반응이 없는 정말 무관심 그 자체였다. 곳곳마다 좋은 장소는 정성 들여 화려하게 세웠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왜 영성 훈련을 받았는지 깨닫는 순간들이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제한받는 현실의 벽이 높았으며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겠다고 하니 "우리는 정부에서 금지하는 일 안 한다."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우리는 여러고성 도는 심정으로 그 땅을 밟고 기도하며 찬양하였다.

금요 집회 때 부른 '거룩한 성'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전하게 하시고 영접 기도까지 시키셨다. 할렐루야! 그곳은 전도지를 돌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웠고, 시골 마을은 통·반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 낯선 사람이 들어 오면 즉시 신고하기 때문에 영어로 일방적인 대화를 하며 접근하여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여 주셨고 특히 젊은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었다. 처음에는 한 명의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역시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양신자(권사, 8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6(월) ~ 7월 4(월)	4교구 6지역	문호식
6월 26(월) ~ 7월 4(월)	5교구 6지역	전종일
6월 27(화) ~ 7월 5(수)	4교구 10지역	이흥우
6월 27(화) ~ 7월 6(목)	10교구 1지역	김현배
6월 28(수) ~ 7월 6(목)	6교구 8지역	안상직
6월 29(목) ~ 7월 7(금)	2교구 7지역	조종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9(월) ~ 6월 27(일)	4교구 13지역	오순도
6월 19(월) ~ 6월 27(일)	8교구 5지역	한윤배
6월 19(월) ~ 6월 27(일)	8교구 6지역	박춘근
6월 19(월) ~ 6월 27(일)	9교구 1지역	강희창
6월 19(월) ~ 6월 27(일)	9교구 6지역	오재일
6월 19(월) ~ 6월 27(일)	13교구 1지역	권영주
6월 19(월) ~ 6월 27(일)	16교구 3지역	윤상철
6월 19(월) ~ 6월 28(일)	정년1부 1팀	박영섭
6월 19(월) ~ 6월 29(일)	2교구 5지역	정문환
6월 20(화) ~ 6월 27(일)	6교구 1지역	박광식
6월 20(화) ~ 6월 28(일)	11교구 2지역	김철환
6월 21(수) ~ 6월 28(일)	10교구 8지역	노태경
6월 21(수) ~ 6월 30(일)	7교구 7지역	이인광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9(월) ~ 6월 24(일)	소망부 1팀	남용철

제2차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2006년 제2차 청지기 훈련을 통한 은혜

“베드로의 회개”(눅 22:61,62)

뇌성 같이 내려진 말씀!

내가 처음에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며, 바다 깊은 곳에 그들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으며,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반석으로 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는 약속을 받을 정도로 외견상으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체는 분명히 달랐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야 할 구속사를 막는 사탄으로서의 베드로, 자신의 뜻과 의지로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기 의를 강변하던 베드로, 마땅히 자기를 부인해야 함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 더 나아가 이제까지 교만과 의식으로 덮여 있던 추악한 나의 위선적인 믿음을 적시하게 하였다.

이처럼 내게 뇌성 같이 강렬하게 내려진 말씀을 통해서 나는 깨어지며 부끄럼 수박에 없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시는 고난 중에 베드로를 사랑하시어 돌아봐 주셨던 예수님, 그가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가르치시며, 마침내 성령을 부어 주시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기꺼이 자신을 내어 놓게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고, 만났다. 이제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자기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붙든다.

이영희(집사, 1교구)

회개의 복음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다.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시는 마음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많았을 것 같다.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도우시고 계심을 깨달았다. 주님을 따르며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셨다. 자기 부인이 없는 주님을 참모로 알 수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진정한 자기 부인은 없었다. 회개와 자기 부인과 주님의 길은 동일선상에 있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위한 축복의 소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회개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한다.

조영희(집사, 5교구)

교만의 깊은 늪에 빠져 있던 세계

자기 만족, 교만의 깊은 늪에 빠져 있던 자에게 ‘베드로의 회개’라는 주제는 제 목막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던 저에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은혜를 배후시키고자 작성하신 주님께서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너무도 이기적이며 ‘내가, 내가’를 의치고 있는 제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모습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라 자칭하고, 자신의 뜻과 의를 내세우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일이라 핑계하던 베드로의 모습!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실책자 베드로였지만, 그가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셨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회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추악하고, 날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제게도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절정하게 회개하고 나를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까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내 의지대로 살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겠다고, 저는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없는 낮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책임지셨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기에,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김희영(집사, 11교구)

회개하라!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앞세워 나의 의지대로 살고 사탄의 미혹에 속아 실수를 반복하며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안타까운 제 자신의 모습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믿음과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모두 내다버리기도 하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버리지 못하고 “나”를 앞세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죄에 물려져서 살아온 나의 일쑤한 심령을 그대로 드러내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어 나에게 회개하라 명하시오니 나에게 회개할 은혜를 주시옵고 내 전심으로 주께 돌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져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청지기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물을 얻은 자니라”(벧전 2:10).

이순자(집사, 18교구)

도와 주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저는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을 발견하였다. 자기의 경험, 의지, 자기 자랑, 실수투성이인 내가 아니었던가? 말씀을 머리로, 귀로, 가슴으로 믿고 기도하지만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온통 저 아래 갇혀 있는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 열기와 욕심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갈망하는 터럽고 추한 내 모습.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험기 부리고 실망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을, 기뻐하기보다는 불평을,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이리하고 추한 나의 연약한 모습. 온통 육신의 정욕으로 뒤덮인 나, 죄인 중의 죄인으로서도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고 울부졌던 모습이 내가 아닌가?

예수님은 정말로 부끄러워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나의 심령을 노크하시며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신다.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사랑과 공물로 감싸 안으신 사랑의 예수님이 돌 같이 굳은 내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두드러신다(벧전 2:21). 주여! 절로 같이 연약한 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갈망합니다. 도와 주소서. 회개하며 변화된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김영주(집사, 3교구)

교회 랑방 중등1부(교사화)

십자가, 은혜 그리고 헌신!



어리저리 없었지만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 교육도 그렇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 교육 현장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축복과 학년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들의 마음을 느껴 보자.

교사로서의 소명?

예수님을 만난 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변화한 한 복음의 이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김정은 교사, 23장)

부족한 것 뿐이지만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교사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교사, 12장)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뒤 말씀에 대한 감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사를 하면서 제가 먼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변현순 교사, 신인교장)

저는 축복과 사명 감을 방황했습니다. 이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절망 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저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홍금

성 집사, 교무처장)

나에게 맡겨진 양로자들?

제가 교사이지만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 연수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일찍 나오는 찬양대원들을 볼 때마다 대견합니다. (오영선 집사, 음영교장)

예마다, 부족한 저에게 맡겨 주신 학생들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비록 길으로는 산만하여 제대로 배우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컴퓨터 중독 때문에 탈모까지 되어 버린 한 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윤순 집사, 3과장)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섬김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세상적인 말보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면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김정은 교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과만 만나지 않고 그들의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어 아이들이 복음으로 양육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집사)

학생들에게 전한 십자가?

신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반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변현순 교사)

주일 학교 때부터 교회에 잘 다니는 학생들 중에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알려 줍니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윤순 집사)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있음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구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유일한 찬양의 제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영선 집사)

주님을 향한 간구와 기사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비해 저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을 위한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홍금성 집사)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저의 자녀들을 위해 했던 것 이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겠습니다. (이윤순 집사)

그 동안 교사로 섬기며 깨달은 사실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사인 저에게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교사)

비록 몸은 약하지만 음영대와 금요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현순 교사)

새벽마다 깨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김영숙 교사)

천국은 오직 한 영혼의 양육으로 섬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임에도 그저 보람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직 한 영혼이 되도록 섬기겠습니다. (오영선 집사)

교사들은 머지않아 헌신관이 있다. "학생들보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더욱 필요함이다" 학생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는데 시험 기간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도 어려서부터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편진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341장 나 하나님께 이끄리어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단히 노력하여 애쓰며 살아온 흔적을 보다는 십자가의 은총이 있었기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더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라”** 사라는 말을 멀리 보내 놓고 노심 초사 격정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는 답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힘 되시고 방패되어 주소서.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나 같은 죄인 위해 깊은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골다단 언덕으로 가신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을 만 믿고 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감히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기초석이 되어 주신 그 무릎 위에 바로 서서 말했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이신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하리라”** 이제 남은 육신의 때는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 하시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일평생 살았던 주님께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이끄리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는 중에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유병수(집사, 임마누엘 전일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입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958	이규민	5	고등부	최영진(7)	1985	김이름	19	대학부	손창순(10)
1959	이정민	19	대학부	김한나(1)	1986	이윤수	2	초년1부	이형근(6)
1960	송호준	3	대학부	김연석(6)	1987	김태훈	19	중등3부	박현외(2)
1961	유은하	13	예비대	김정근(5)	1988	김병성	2	초년2부	한기희(4)
1962	고정호	9	초년2부	김장남(9)	1989	권경성	19	고등부	최두루(15)
1963	유재진	13	초년2부		1990	이유미	19	대학부	유미진(16)
1964	이수진	13	초년2부		1991	김병남	12	초년3부	김장재(4)
1965	정영희	13	초년2부		1992	송재민	19	대학부	안형택(1)
1966	박병학	1	초년2부	박병환(4)	1993	김혜진	1	초년1부	
1967	이현서	19	대학부	채은실(18)	1994	손세현	19	초년1부	김혜정(3)
1968	루시은	19	대학부	한영옥(6)	1995	유진택	15	초년1부	정의희(10)
1969	이세희	19	대학부	조성민(6)	1996	조성민	19	대학부	홍경화(1)
1970	박재진	19	고등부	한건희(16)	1997	정미라	19	대학부	최지성(3)
1971	이정자	12	초년2부	이명숙(12)	1998	박윤주	19	대학부	이주영(1)
1972	함영자	19	외선부	김성택(1)	1999	박정우	19	초년1부	안복남(8)
1973	곽영희	19	외선부	김성택(1)	2000	아라리(19)	19	외선부	
1974	송소희	19	외선부	김지훈(5)	2001	박미	19	외선부	
1975	변영철	15	초년1부	임남진(7)	2002	아라	19	외선부	
1976	한영선	15	초년2부	김정숙(6)	2003	새창	19	외선부	
1977	이민주	15	초년2부	김정숙(6)	2004	반다라	19	외선부	민선기(3)
1978	이순자	19	외선부	김성택(1)	2005	가만파	19	외선부	최정일(4)
1979	이도희(19)	19	외선부	손창순(10)	2006	도미라	19	외선부	
1980	이태현	19	초년1부	서성민(1)	2007	레나	19	외선부	
1981	이유순	2	초년2부	이명두(6)	2008	남기현	19	대학부	박성준(6)
1982	이예희	19	고등부	나나현(16)	2009	최희재	19	대학부	홍성원(15)
1983	이성민	6	초년1부	조미영(6)	2010	이윤주	19	대학부	서이진(15)
1984	송미라	19	대학부	이옥주(1)	2011	변영민	1	초년1부	이영숙(1)

* 찬양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층 2층로 등록할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신

모임

- 1. 남산 전도부 전례 회례회
일 시 : 25일(목), 15:10 장소 : 제1교구관 501호
- 2. 안수집사 부부안수 리라살
일 시 : 25일(목), 18:00 장소 : 본당

별세

- 1. 박정현 성도(안영호 명호·김향의 성도의 아들, 김용수 성도의 남편, 1교구 목사(구목)) 17일 별세, 19일 장례
- 2. 이영옥 회교장(이성복 안수집사의 부친, 이영희 성도의 사위, 9교구 회교구목) 18일 별세, 21일 장례
- 3. 이기복 배집집사(신석리사의 아들, 16교구 회교구목) 21일 별세, 25일 장례
- 4. 박준열 성도(김정선 성도의 남편, 6교구 장로(구목)) 22일 별세, 24일 장례

결혼

- 1. 이명열 군(이영일 성도, 김향자 집사의 아들, 2교구)와 이혜경 집사(김태호 목회) / 29일(목) 18:00 노블랜드 엘버스터 대관식 진행
- 2. 박준호 군(박민현 성도, 한경자 씨의 아들, 송곡교회)와 정영주 장녀(박주 안수집사, 서영희 권사의 딸, 17교구) / 30일(금) 13:00 가톨릭리틀

◆강남여름수련회

- 1. 일 시 : 6월 29일(목), 09:00~20:30
- 2. 장 소 : 송원기도원
- ◆강남여름수련회
- 1. 일 시 : 7월 4일(화), 10:30~16:00
- 2. 장 소 : 갈매리밭
- 3. 대상 : 70세 이상 모든 성도

◆전도위원회 8월 개회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회계 결산을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결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 1. 결사 기간 : 2006년 7월 2일~2006년 7월 30일
- 2. 대상 기간 : 2006년 1월~6월
- 3. 결사 장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 4. 준비 서류 : 공헌금납부, 원장 사본보 1부(2006년 1월~6월), 영수증집, 예금증본

2006년 단기선교팀 4차 언어훈련

시간 : 매주월 오후 3:00~3:50 기간 : 2006. 7. 2 ~ 8. 27 (총 8강)

연어국가	강사	강의실	언어국가	강사	강의실
몽골	나 라	교육관 401호	내 몽골	김예스터	교육관 201호
인도네시아	이 북희	본 당 112호	러시아(동부)	김예스터	교육관 408호
우크라이나	배두경	교육관 409호	방글라데시	따 무	교육관 303호
베 트 남	전 교육관 510호		캄 보 디	김 대호	교육관 505호
미 인	나	교육관 407호	캄 보 디	김 대호	교육관 307호
온두라스	이	교육관 403호	통 디 로	유 동호	교육관 403호
온두라스	이	교육관 303호	스 리랑 카	다 누 시	교육관 509호
투와티카(파키스탄)	정 은	교육관 410호			

*언어연어 대상

1) 이번 4차(06. 7~8월) 언어훈련으로 금년 전체 언어연어 교육이 종료됩니다.

2) 휴강일은 이번 4기를 원주시 선교위원회(문화관광)에 개강 신청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수강내용

선교지역 필수수업 25개 문항을 정해진 비율으로 읽기 발표

- 현지어 찬양 2~3곡 필히 암송

- 11년도 실습을 정리하여 반별 훈련

- 현지어 전도지 능숙히 읽기

- 영양(2006년 숙지, 암기)

- 지리, 문화, 풍습, 기후, 국가 통치체제 설명(10~15분)

7월 주일 및 수요일 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찬양예배 (안수집사)		수요일 예배	
		I	II	III	IV	V			I	II
7	2	강철형	신광철	전홍용	노영한	김연근	김홍기	이남숙	이종석	
	9	강철환	최희용	최치용	이달용	배준식	이성범	김복수	임강순	
	16	박상찬	김강구	임두원	전홍용	한철주	장상만	정경희	문정화	
	23	신상수	김정구	신진식	이철호	김영은	김진옥	양정자	박효순	
	30	박철구	김형곤	유상태	조재승	안석현	박원화	이경현	김재명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6/26(월)	6/27(화)	6/28(수)	6/29(목)	6/30(금)	7/1(토)	7/2(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이태식	이종대/노은영	정현민/전삼진	류병복/이선만	김영준/이창우	여극근/김정자	윤수원/김정희

예배담당 안내 (6/28-7/2)

날자	예배	찬 양	기도	설 교
6/28	수요 I	귀한신 주여 날 불드사 (호산나 찬양대)	장 훈	김연근
6/28	수요 II	세상 모두 사랑 없이 (실로암 찬양대)	이정훈	최정화
6/30	금요일회	소프라노 윤지영 / 성교수장단 / 안수집사 부부찬양대	최정화	김성관 목사
7/2	주일 I	(예배 전 헌양)	이정훈	강철형
7/2	주일 II	내 주여 보혈은 의 / 별이 어둠이 날을 오케스트라	이성진	신광철
7/2	주일 III	나 배한 것으로 의 / 소프라노 김희연(한빛교회 찬양팀 솔로리스트)	정현민	전홍용
7/2	주일 IV	렐런이 날 위하여 의 / 토크 김용주(한빛교회 오케스트라)	이종대	노영한
7/2	주일 V	예수 나를 위하여 의 / 소프라노 김희연(예배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영은	김연근
7/2	주일찬양	한빛교회 제2여성찬양단 / 만도린 연주대 / 아멘 찬양대	장 훈	김홍기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회복자 특별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회	저녁 11:00	금요일회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우크라이나, 오호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통역 가능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유 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30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15	교육관 507호
청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15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30	강 렬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자관 지하1층
예배부부	오전 9:00(회복자) 오후 1:00(안수)	제2교육관 1층
타 국 부	(월) 오후 8:30~9:00(회복자) (금) 저녁 7:00~7:30(회복자)	교육관 110호
새가족목양부	오후 12:15	베 다 니 홀
중년어린이집	주안교육	교육관 107호
청년영어인도교육	주안교육	충현 복자관
국회한국인교부	월일 11:00	아 맨 홀

성 · 기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 노영한	■ 이명학	■ 이훈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김홍준 교목회 남산부	최희용 교목회 남산부	이창호 교목회 남산부
김강남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전홍용 교목회 남산부	전홍철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김홍준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 부목사

이종대 교목회 남산부	정현민 교목회 남산부	박원화 교목회 남산부	류병복 교목회 남산부	김영준 교목회 남산부
여극근 교목회 남산부	안강숙 교목회 남산부	나영애 교목회 남산부	전진호 교목회 남산부	고광환 교목회 남산부
위대환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장 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희서 교목회 남산부
최정철 교목회 남산부	하정훈 교목회 남산부	안석현 교목회 남산부	정승진 교목회 남산부	양재용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조규호 교목회 남산부	이재영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 어전도사

신동자 교목회 남산부	윤순진 교목회 남산부	한영준 교목회 남산부	김민석 교목회 남산부	홍순애 교목회 남산부
이유주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안대순 교목회 남산부	김정현 교목회 남산부	강덕원 교목회 남산부
최정철 교목회 남산부	최정철 교목회 남산부	최정철 교목회 남산부	최정철 교목회 남산부	최정철 교목회 남산부
이희서 교목회 남산부	이희서 교목회 남산부	이희서 교목회 남산부	이희서 교목회 남산부	이희서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이정훈 교목회 남산부

■ 찬양감독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